

강제명퇴 거부 투쟁!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명퇴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회사는 21일(월)로 연장 없이 마감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사에서 주말에 약간의 추가 압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로 마무리 되는 분위기이다. 여러 설이 난무하므로 지금으로서는 명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없다. 명퇴자가 얼마가 됐건, 모집은 끝났고 그래도 우리는 잔류를 선택했다.



노동인권 침해의 백화점이 된 KT 명퇴강요

이번 명퇴 기간 내내 심각한 명퇴 강요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대부분의 지사에서 면담은 정보를 주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강요였다. “타본부로 체임한다”, “나이, 성별 불문하고 케이블 포설 및 통신구 정비 작업에 투입한다” 등등의 협박이 전국적으로 횡행했다.

그나마 면담만 했다면 그건 양반이다. 강당에 몰아넣고 하루 종일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만든 지사, 전 직원에게 “짐 싸라”고 박스를 나눠준 지사 등 엽기적 강요행위가 줄을 이었다. 심지어 선로 현장 직원들에게 “유선전화 사업 활성화 방안”을 A4 용지 3장 규모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지사장도 있었다.



전 직원에게 박스를 나눠준 강서지사(사진)

회사를 경영하자는 것인가 노동자들 죽이자는 것인가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구조조정 했다 치자. 만약에 황창규 회장이 이석채 잔당들을 모두 청산하고 회사를 망친 노무관리 라인들을 정리한 후, 그래도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 “부족하지만 선배님들이 용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면서 명퇴를 시행했다면 아마도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됐을 것이다. 똑같이 나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모멸감과 인간적 배신감을 갖고 회사를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우리는 이번 구조조정의 일방성과 야만성으로 볼 때 황창규 회장과 경영진이 KT 노동자들을 같이 살아가야 할 동료가 아니라 회사의 비용 요소로, 즉 인간이 아닌 돈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깊은 분노를 느낀다. 인간적 호소가 아닌 겁박으로 해결하려는 공포경영의 끝이 어디란 것을 우리는 재판대에 선 이석채를 통해 똑똑히 보지 않았던가!



실패한 프로젝트 명퇴 강요!

이번 명퇴가 규모가 얼마나 되었건, 이미 이는 황창규 혁신의 실패를 예고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렇게 직원의 절대 다수를, 그리고 퇴직자의 대다수를 경영진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말이다. 게다가 의외로 40대의 젊은 사원들이 이번에 사표를 많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새노조가 그들과 인터뷰한 결과는 놀라웠다. “50대들은 다닐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버티면 그만이겠쥬. 그런데 40대인 우리들로서는 이 회사에서 어떤 비전이 있다고 계속 다니겠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살 길 찾아야쥬.” 게다가 30대들조차 “어서 빨리 새 직장 구해야쥬다”는 결심을 굳힌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선배들을 비참하게 내몰 뿐 아니라 젊은 후배들에게 비전을 못 찾게 만든 게 바로 이번 명퇴 강요 사태이며 그래서 실패한 프로젝트인 것이다.

황창규 회장 반인권적 명퇴 강요 사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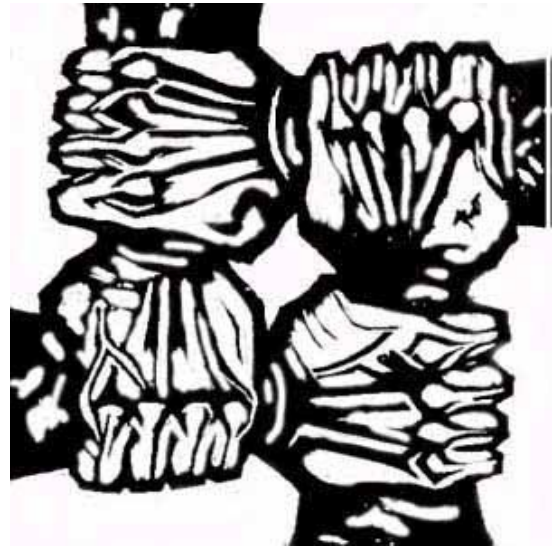


이번 명퇴 기간 내내 직원들이 겪은 인간적 모멸감, 배신감은 명퇴가 종료됐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회사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영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이 심리 상태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원이 누가 있겠나! 직원들의 이런 심리적 반발 상태를 방치한 채로는 “1등 KT”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가 살기 위해서라도 명퇴 강요 과정에서 뱉어 놓은 무시무시한 협박과 강요에 대해 황창규 회장이 직원들에게, 그리고 퇴직한 분들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치유 없이 KT가 결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투쟁은 지금부터이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분의 대부분은 지금쯤이면 마음을 굳혔을 것이다. 불안감을 갖고 한 선택일지라도 우리는 잔류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가장 우선적으로 직무전환 교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 앞에 당당하게 행동한다면 이는 KT의 공포의 기업문화를 정상적인 기업문화로 바꾸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번 명퇴거부 투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KT새노조의 존재감은 확실한 것이다. 여기에 직원들과의 소통의 힘이 더해지면서 KT의 비인간적인 명퇴강요는 순식간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소통을 발전시킨다면 경영진의 치졸한 보복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투쟁은 지금부터이다. 교육 내용이 또 다시 명퇴 강요가 아닌지 철저히 감시하자. 교육 동기들부터 서로 잔류자라는 공감대를 갖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단결하자! 114 분사 잔류자들이 그랬듯, 직무전환 교육부터 우리가 함께 한다면 잔류자의 고용안정, 완전 보장되는 셈이다. KT새노조는 그런 동지들의 잔류투쟁의 중심에 설 것을 다짐한다.

사라져야 할 것은 정기명퇴와 대학학자금이지 아니라 어용적 노조행태와 공포의 기업문화

이번 특별명퇴를 끝으로 사라져야 할 것은 정기명퇴와 대학 학자금이 아니라 제1노조의 어용적 노조행태와 “비연고지로 보낸다” “맨홀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식의 협박과 공포의 기업문화이다. KT새노조는 수 차례 주장한 것처럼 명퇴 과정에서의 반인권적 강요 행위와 앞으로 발생할 지 모를 비연고지 발령 등 명퇴 거부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다. KT새노조가 이석채 퇴진 투쟁을 통해 확보한 시민사회와의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국정감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명퇴 강요 행위 책임자들을 밝혀내고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약속하거니와 우리가 다수노조가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정기명퇴와 대학 학자금부터 부활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KT제1노조 조합원들의 결단을 호소한다.

끝까지 긴장하자! 당당하게 소통하자! 인간다운 KT 만들자!

이제 월요일이 지나면 명퇴는 끝이 난다. 마지막까지 마음 다부지게 먹고 잔류를 선택하자! 그리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서로 소통하자! 그래서 인간다운 KT를 만들자! KT새노조는 잔류자의 소통과 투쟁의 구심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 KT새노조 가입방법 〉

1. 아래 지역 지회장께 연락하시면 새노조 가입확인서 보내 드립니다.

- 수도권 : 장교순 010 6802 5131
 김미영 010 9932 2002
- 충남북 : 방영식 010 6770 6968
- 전남 : 김상옥 010 9885 9494
- 전북 : 오주현 010 2686 6084
- 대구 : 원병희 010 9877 3600
- 기타지역 : 유용국 010 9854 2510

2. 새노조 가입확인서를 KT 지부장에게 제출 하시면 끝!!

3. 다음달 노조회비 자동납부 되는지 확인! 끝!!